

득남, 순산도 부정하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 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 륙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개역, 레위기 12:1~8]

옛 날에는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반대말이라 하지 않고 상대어라고 합니다. 득남의 상대어는 득녀입니까? 득남의 상대어는 득녀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더군요. 아들을 낳으면 득남이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요? 순산하셨다고 하지요. 아직도 득남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 득녀하면 섭섭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아들 딸 구별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면 믿는 성도로서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의 구별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성도 중에 혹시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상하 관계로 구별하면서 남자니까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여자니까 좀 얹잡아 보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래도 남자가 머리같고 여자가 돕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던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짧은 기간에 설교만 해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 도중에도 가끔 그런 언급을 하면서 부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깨어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에 당당하게 어느 집사님 득녀하셨습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래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사편 127: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사편 128:3)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신대원에서 젊은 전도사들과 같이 지내는데 이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 부인이 아이 낳을 때가 다 되니까 아예 중계방송을 하더라고요. 신대원 친구들끼리 모이는 인터넷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부인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지금 배가 아파서 야단인데 기도해 주세요, 약을 뭐뭐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식으로 중계방송을 합니다. 나중에 비디오 카메라까지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짹짹하게 한마디 썼습니다. “누가 이렇게 방방 뜨고 있냐? 겨우 애 하나 가지고...” 그게 우스개가 되곤 했습니다. 어쨌든 출생은 축하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본문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은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아들을 낳았거나 딸을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말하나요? 무슨 나쁜 짓 했나요? 더군다나 아들을 낳으면 칠일간 부정하고 또 삼십삼일이 지나야 깨끗해지니까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데는 사십일이 걸립니다. 여자아이는 이칠에다가 육십육일 이니까 팔십일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사십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팔십일이 부정합니다. 아니 무슨 나쁜 짓 했냐? 왜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대답 잘 하셨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성경도 자식은 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복된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말하는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서는 안되는 것들은 성물을 만져도 안되고 성소에 들어가도 안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성소 안에 있는 집기류를 말하겠지만 여기의 성물은 제사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포함해서 좀 넓게 보아야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소에 딸려 있는 부속 마당이나 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나아가야 하는 성소까지도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 정도면 죄치고는 큰 죄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니까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깁니다.

아이 낳은 게 무슨 죄길래 이리 부정하다고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도 아이 낳은 집의 대문간에 뭐 걸어 두는 것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금줄요? 금을 발라 놓았습니까? 금한다는 금禁 자입니다.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아들을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알지요. 기본적인 의미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뜻에서 금줄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적어도 이 여인이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기까지는 모든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여인이 성소에 나아가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흔히 군에서 표현하는 말을 쓴다면 모든 일에서 열외입니다. 모든 일에서 빠지라는 뜻입니다. 예배에도 당연히 빠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녀를 낳은 여인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육체적으로도 쉬고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하고 남편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까지도 손 놓고 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만지는 것은 모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져도 안되고 돌아다녀도 안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방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상책이죠. 그 기간에 남편이 다가오면 남편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애기를 낳아 보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당분간은 남편의 접근을 막아주는 일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새댁들이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채 안되었는데도 아이를 안고 와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반드시 야단을 쳐서 들어 눕혀야 합니다. 이 때 "웬참은데요!" 하고 무리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팔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적어도 이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주는 것만 먹고 땀만 흘리며 누워있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집 사람이 애기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는데 굉장히 맛있겠더라구요. 그런데 끓여놓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집사람에게는 국그릇이 아니고 양재기에다 담아서 갖다 주는데 난 안 주더라구요. 저걸 어떻게 다 먹어치우나 했는데 그런데 다 먹더라구요. 적어도 애기 낳고 누워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여왕의 처지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일에 손을 떼고 편안하게 쉬라는 말이나 40일 혹은 80일 부정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내용상 동일합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기분 나빠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특별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출산한 이후 40일이나 80일 누워가지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시키고 할 일이 있어도 못 나가고 편안히 쉬고만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조교들이 신병들을 고생스럽게 훈련시키는데 마침 자기가 아는 신병이 하나 끼였어요. 빼내어 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요? 티내면 안됩니다. 험하게 말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고향만 질러대고 신병보고는 "야, 잠깐 쉬어!" 그러는 거지요. 남이 보기에는 저 자식 끌려 나가서 혼나는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쉬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걸보기와는 달리 건강을 돌보기 위한 충분한 휴식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준 것과 이긴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원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출생은 누구나 축하하고 기뻐할만한 경사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출산 때에 왜 그렇게 아픈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애깁니다. 아니 다른 짐승들도 다 고통가운데 새끼를 낳는다고 하면 사람만이 특별히 억울할 게 없죠. 그런데 짐승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짐승들은 수월하게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머릿속에 두면서 생각하며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그 해답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은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900년 이상씩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들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줄여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 절반 정도로 줄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차차 줄여서 순식간에 지금보다 조금 긴 정도로, 백 몇세 정도로 나이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이 천년 가까이 사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기껏해야 백년 정도만 살다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오랫동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벌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람이 오래 살면 이 속도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채 오랫동안 살아가는 이 인류의 모습을 오래도록 두고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오래도록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도로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곳곳에는 출생이 죄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워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성경에서 군데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 범죄한 이후 범죄한 가운데 출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고 새로 태어난 그 탄생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지녔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가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기뻐하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보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려는 큰 계획의 틀 속에서 본다면 범죄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출생은 대단한 기쁨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 못할 이상한 것이 보이거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 중에 해산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생명을 예수의 피로 거둬다게 하는 것

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라디아서 4:19)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이 작업을 가리켜서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알거나 알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힘들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해산의 고통에 못지 않은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이라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추진해 갑니다. 그 과정에 누가 희생이 되지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시 온 인류를 불러 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것이 해산의 고통보다 못할까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안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겪는 아픔을 거기에다가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산할 때 당하는 그 아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어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분 아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비명을 지르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 그 때 뭐 하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눈 감는다고 안 보이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나타내죠?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현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는데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뜻에서 그런 아픔을 심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묘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맨 마지막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왜 여자는 해산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해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애기 낳을 때 욕 잘 하대요. 남편 보고 욕하는 것은 별 것 아니고 정상이고요, 시어머니 붙들고 욕을 해대더라구요. 야, 저래도 괜찮은가 싶은데 나중에 낳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하는 것 보면 괜찮기는 괜찮은가봐요. 그런데 그 소중한 때에 남편이나 시어머니 붙들고 욕을 퍼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고도 남으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만큼 이 해산의 고통의 의미와 해산한 이후에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치 못한 심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건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새생명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는 작은 문제지만 성경공부 하듯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부정한 기간이 배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길까요? 남자아子和 여자아이를 다 낳아 본 사람에게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에 어떤 육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물으니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이걸 아무래도 의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 저기 물어봤는데 뭐 별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딸을 낳았을 때에는 아들 낳았을 때보다 더 천대 받는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아들 낳는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뽕뽕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딸이에요. 제주도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날아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 낳았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주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랑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술집을 다녔다고 그러네요. 부인은 울어가지고 눈이 퐁퐁 부어 있고요. 무슨 죄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전에 아들이라고 큰소리를 하도 치길래 좀 놀렸습니다. “니가 그 재주로 무슨 아들이냐?”고 몇 번 그랬는데 딸 낳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분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입만 떼면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드니까요. 이스라엘도 남녀 차별이 심했던 곳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딸을 낳았다는 섭섭함이나 후유증들이 깨끗하게 가라앉으려면 남자아이 낳았을 때보다 이 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 이 기간이 짧은 것이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는 대신에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사십일을 더 채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제사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다른 노력을 조금 추가 시키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자아이가 받는 할례와 사십일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팔십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다 차면 다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일년된 어린 양으로 속죄제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라고 하면서 만약에 가난해서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릴 수 없는 경우는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산비둘기 둘을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핵심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번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능력이 안되면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하면 산비둘기의 가격은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그 걸로 대신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갈 때 도저히 형편이 안되면 백원도 좋고 십원도 좋으니 드리라는 겁니다. 백원밖에 안 내도 백만원만큼 효력이 있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정 안되거든 산비둘기로나 집비둘기라도 드리라고 했는데 효력이 같을까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감안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말을 적지 않게 들곤 합니다. 그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돈없고 가난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소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죄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물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정 안되면 흉내라도 내라는 뜻입니다.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물은 어린 양인데 속죄물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커야 될 것 같습니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커야 정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요구하는 제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때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 안되면 낮추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제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테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누구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 능력이 없으면 흉내라도 내고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표현입니다. 속죄하는데 큰 제물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속죄함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제사를 드리려거든 번제를 어린 양으로 드리라는 애깁니다. 그것도 능력이 안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려도 좋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 어떤 위대한 권력자가 이렇게 양보하면서 명령 받는 사람의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려준 명령이 있는가 한 번 보십시오. 하나님

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이 출산의 규정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출생은 정말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건 마음껏 축복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할 때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범죄한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